



김봉준·배문경 변호사 부부(위는 한·미 FTA로 인해 한국 법률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.)

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김&배 로펌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. 실형은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 학생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. 가해 학생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. 더 큰 문제는, 물어야 할 벌금이 1만30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이다.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식료품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해결하던 학생이었다.

김&배가 하는 일이 많다. 한·미 FTA로 한국 법률시장도 열리는 것 아닌가?

김:법률시장이 열린다고 하루아침에 미국 로펌이 들어올 수는 없다. 한국 변호사들의 자질이 뛰어난데다 한국은 인맥이 중요한 사회 아닌

가? 한·미 FTA로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지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다. 현재 부산대·동아대 등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다.

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?

김:(한숨)아...답이 없다. 지금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1만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. 그런데 매년 2000명가량이 새로 나오지 않나. 5년이면 지금까지 배출된 1만명을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다. 약 5년 후면 FTA 덕분에 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. 1만명이면 적당한데 갑자기 규모가 커지면서 상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. 넘쳐나는 인력이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.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.

한국 법률시장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진 분야가 있나?

김:뒤떨어진 것은 잘 모르겠다. 다만, 미국 변호사들은 경쟁의식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. 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오면 광고·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.

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?

김:한·미 간 무역이 늘고 있다. 한국과 한국인에게 미국과 관련해서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싶다. '소송 천국'인 미국은 무엇이든 소송하는 습관이 있다.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. 독도 교과서 소송도 몇 년은 갈 것이다. 최선을 다해서 독도를 지켜내고 싶다. ●